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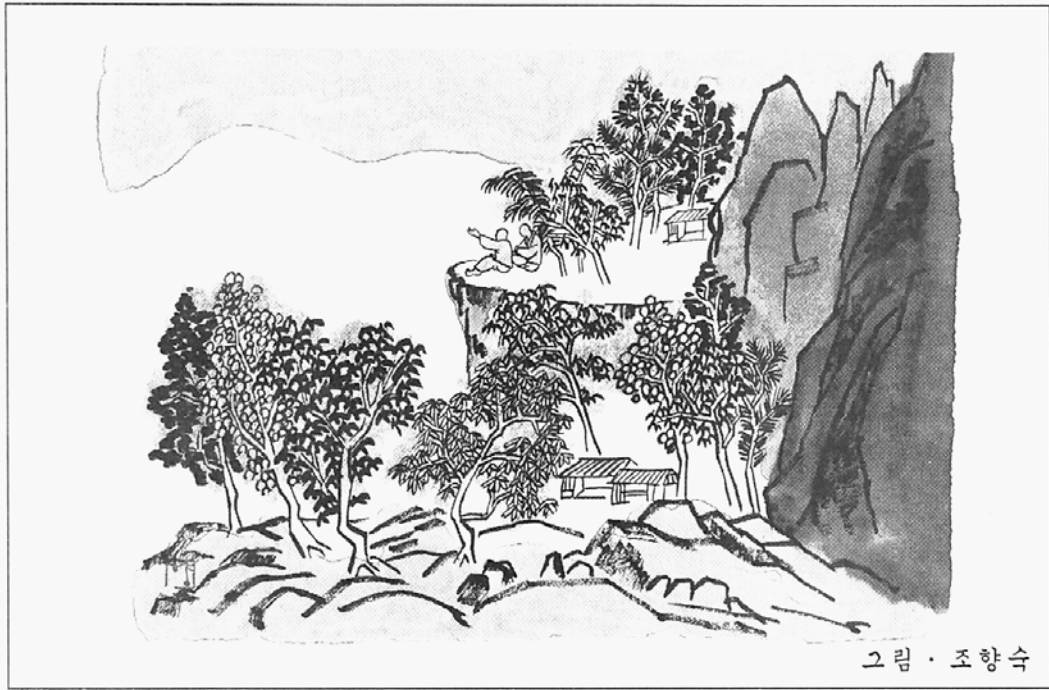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파도는 시인 불이(不二)

사바세계의 시간으로 남각이 죽은 지 21일째가 되는 세번째의 명계(冥界) 심판에서 법관(法官)인 송제왕(宋帝王-문수보살의 화신)에게 가서 고양이와 뱀을 만나서 놀라고 있는 때였다.

사바세계의 무욕도에서는 그동안 남각의 행방불명으로 깊은 상심(傷心)도 없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여느 일경 그대로 보내고 있었다.

이 무렵 그곳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불이가 시 한 수를 한밤중의 파도에 대고 큰 소리로 읊어대는 일이 그것이었다.

앞에는 푸른 물결 뒤에는 푸른 바위 갈래와 소나무가 섞여 우수수 사공(謝公)의 흥취는 나무신 두 짝일 뿐 장한(張翰)의 향수는 한 돛에 가득하던 서 후산(後山)에서 백학을 타오만 하니 분포(盆浦)의 푸른 소매 적시어 무엇하냐 십주(十洲) 삼도(三島)를 두루 다 노닐어도 표현히 범골(凡骨)을 바꾸었으니 부끄러워라 (前塵香波後翠巖 蕭蕭盡盡半松杉 謝公遺興唯雙履 張翰歸心滿一帆 只要後山騎鶴鶴 不須盆浦立青衫 十洲三島遊遊遍 自愧依然骨換凡)

이 시는 불이의 전생 가운데서 고려의 불우한 시인 임춘의 생을 사는 동안 그의 막역한 친구인 시인 이인로(李仁老)의 것

이었다.

그렇다면 불이의 기억 밑바닥에 남겨진 전생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의 시가 아닌 친구의 시를 떠올려 그것을 즉흥으로 터뜨린 것인지 모른다. 그 자신의 전생에 친구와의 수자이나 친구의 시까지도 편입된 셈인가.

이 시의 '사공(謝公)'은 고대중국 남조(南朝)의 큰 시인 사염운(謝靈運)이다. 그는 불교에 깊이 귀의해서 당대의 열불선(舍佛禪)의 정토발원으로 이른날 고승 혜원(慧遠)을 자주 찾기도 했으며 다른 산에도 오르는 것을 즐겼다. 그가 산에 오를 때에는 나무신의 뒷골(後嶺)을 때고, 내려올 때는 앞굽을 때는 것이었다.

장한은 낙양에 가서 벼슬을 살다가 고향의 산나물과 농어회 생각이 간절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다.

후산이란 곳은 한 왕자가 신선이 되어 백학을 타고 승천한 산이다. 이와 함께 분포는 백거이(白居易)가 강주(江州-분포)의 지방관으로 머물던 중 '비파령'을 지었는데 그 시에 '좌중에 호노기 울을 누가 제일 많았나. 강주러서 푸른 소매 모두 젖었네'에서 연유하고 있다.

십주 삼도도 바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 이인로의 시 '임암사(仰巖寺)'는 현실에 대한 깊은 비관골의 매우 초현실적인 신선사상이 주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친구의 시를 고려 당시의 일촌은 무척이나 좋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제 임춘의 후신인 불이의 시심(詩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즉흥으로 재생된 것이다.

이것은 남각의 실종 또는 죽음을 연상하는 것이 틀림없다. 불이는 남각이 무욕도의 현세를 떠나 바다 저쪽의 신선이 된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었다.

불이는 인담으로부터 남각이 지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사실을 들었으나 그는 지옥이 아니라 이승의 신선이 된 남각을 상상하고 있었다.

불이는 캄캄한 밤에 혼자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파도의 저 먼곳에 있는 남각을 생각했다 그때 불이의 등짝을 가만히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불이는 캄캄한 밤에 혼자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히긋거리는 파도자락의 그 지칠 줄 모르는 힘에 사로잡혀서 파도의 저 먼 곳에 있는 남각을 생각하며 그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충동에서 헤어나기 싫었다.

그때 불이의 등짝을 가만히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녀였다. 우녀와 합덕의 처소는 위쪽의 정사인데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녀는 그녀의 권력의 지와도 같은 수행의 위엄 따위는 벗어난 한 여성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 우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불이는 이성(異性)에 대한 일종의 무중력 상태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녀가 불이의 몸을 건드린 일도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파도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불이는 말문이 막혀 있었다.

"파도 하나 하나는 천년인들, 만년인들 똑같지 않은 것이어요. 그러므로 파도는 언제나 새로운 파도입니다. 그렇지요? 불이스님."

드디어 우녀의 본심이 나왔다.

"아까 불이스님은 큰 소리로 시를 읊으셨지요? 그렇게 큰 소리로 읊어서 파도소

남자나 여자가 생전의 성행위가 사음(邪淫)이나 과음이 아닐 경우는 고양이와 뱀이 가만히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남각은 생전의 강간 때문에 세번째의 심판에서 고통 받는 중생계로 들어갈 죄가 분명하게 되었다. 바로 이같은 사실을 우녀가 그의 투시력으로 알아내어 불이에게 알려주었다.

"남각스님 같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다니요"라고 불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녀가 그런 불이에게 한마디 던졌다.



34

리를 이기려 하셨지요. 그래서... 파도소리를 이기셨습니까?"

이제까지 우녀로부터 뜻밖의 이성(異性)을 느끼고 있었던 불이는 몇마디 말을 들은 동안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성은 커녕 여전히 서릿발이 어리는 위엄의 여자가 바로 우녀였던 것이다.

그녀가 허파에 병이 든 환자가 토하는 검은 핏덩어리같은 말을 내던졌다.

"남각스님의 일을 알고 싶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왜 알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알고 싶은 일인데요."

"불이스님도 남각스님이 간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불이스님은 아직 그곳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만 들어갑시다. 새벽 기운에는 몸이 상하기 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 불이스님과 내가 애련(愛戀)을 속삭인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녀는 여느 때의 그녀가 아니게 불이의 몸이 그녀의 몸에 몇번인가 닿아도 가만히 있었다. 아니 그러하기를 바라는지도 몰랐다.

"파도 하나 하나는 천년인들 만년인들 똑같지 않은 것이어요 그러므로 파도는 언제나 새로운 파도입니다"

이제 어둠은 어김없이 물러났다. 빛장이가 빛을 받고 떠나듯이.

그때였다. 불이가 파도 위에 타고 밀려오는 것을 손가락질 하였다.

"저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연 그 물결은 곧어나 가오리 따위가 아니었다. 인담이 좀더 가까이 갔다. 그것은 옷 조각이었다.

"장대를 가져오시오"라고 인담이 말하자 수월이 긴 장대를 재빨리 가져왔다. 그 장대로 파도 그트머리에서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옷조각을 어렵사리 건져올릴 수 있었다. 인담이 한숨을 쉬어 말하였다.

"남각화상의 것이 틀림없소."

"아니... 정녕 그렇다면..."

"그도 만화사님을 그렇게 뒤따라서..."

그 때 우녀는 북관의 개마고대(蓋馬高臺)의 산촌 언저리에서 어떤 떠돌이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의 언덕에서 굴러내린 감투만한 물건을 찾아 쓰러졌다.

그는 갑작스런 비명(非命)으로 죽어야 하였다.

"아 이 사람, 사흘전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 아닌가?"

"그 호랑이를 값도 받지 않고 뒷발 사람에게 주어버린 사람이로군... 이런 도량 큰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하나니..."

이런 소리를 하며 모여든 산촌 화전민 남정네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은 떠돌이 사냥꾼의 흔적은 그 자신의 시체와 그 시체를 둘러싼 화전민들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연실이 끊어진 연이 공중의 바람속에서 떠날려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흔적의 사정이 바뀌더니 아주 천천히 그 자신의 시체로 가까이 갔다. 그 뒤 흔적은 시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제서야 떠돌이 사냥꾼은 죽었다가 깨어나서 심한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어! 깨어났어!"

"살았어!"

이런 화전민들의 놀라운 소리도 사냥꾼의 소리와 어우러졌다.

바로 이런 광경을 우녀의 신통력(神通力)은 어떤 전생의 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남각의 전생이었다.

"과연 장부의 생사로군."

바로 이런 남각이 저승으로의 여행에서 몇군데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그것도 그녀의 특별한 직관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과연 장부다운 길이로군! 지옥에의 길!"



제·원·스·님·에·세·이

고적인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市)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로, 그것은 제원스님의 흠뻑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열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늙은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특유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 산길을 닦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목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이 필요하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까?



정법에 입각한 수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의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 등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